

세계적인 팝아티스트
줄리언 오피



“신사동 거리 보면서 현대인의 내면 읽었죠”

현대인들은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 도심 거리거리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저마다 바빠 걷는다. ‘빨리 빨리’를 외치는 서울은 말할 것도 없다.

영국 출신의 스타 작가 줄리언 오피(56)는 바로 현대인의 자화상을 바쁜 발걸음에서 찾는다. “인간은 걷는 존재죠. 그 움직임은 매우 인간적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측면에서 있는 사람들을 그렸듯이 저 역시 사람들의 움직임을 측면에서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5년 만에 국내 전시를 위해 방한한 그의 일성이다. 전시가 열리는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만난 그는 “두 번째 한국 전시인데, 이번에는 신사동과 사당동 거리 풍경을 바탕으로 작업한 신작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갤러리 벽에는 사당동 비 오는 거리에서 우산을 쓴 사람들과 신사동 거리를 걷는 젊은 남녀의 모습 등이 담긴 한국 연작 네 점이 걸려 있다. 작품 속 사람들은 휴대폰을 쳐다보거나 전화를 받거나 이어폰을 꽂고 걸어간다.

“그림자가 많은 런던에 비해 서울은 화려해요. 신사동 사진을 보니 정말 한국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구나 생각했죠.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가방

과 소품, 액세서리가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작품에선 그림자를 지우고 디테일을 살려야 했지요.”

오피는 서울에 있는 사진가가 보내준 사진 3000장에서 선택점을 뽑아 작업을 했다. 인물의 구성과 배치, 옷차림은 실제와 상상력을 적절히 배합한

국제갤러리서 개인전
한국 거리풍경 그린
‘걷는 사람’ 시리즈 등
회화·조각 30여점 전시

결과다.

‘걷는 사람’ 시리즈는 사실 누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도시의 익명성은 그에게 그리 어두운 주제가 아니다.

“인간은 익명성과 개성의 중간 즈음에 있는 존재지요. 사회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외국에 가면 여권이 필요하지만 개개인 내면에는 각자 소유주를 가지고 있어요. 내면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은 미스터리지요. 각자 우주를 품고 있는 수많은 개인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경이롭기도 해요.”

비닐 페인팅으로 불리는 그의 작업은 컴퓨터에서 실제 사진을 불러와 드로잉을 하고 색을 결정한 뒤 이를 공장에 보내는 과정을 거친다. 50개의 다양한 색상을 가진 비닐을 형태에 맞게 오려 일일이 나무판에 붙이는 방식으로 완결된다.

굵은 선과 간결한 형식은 그의 트레이드마크. 그래서 그의 작업은 일러스트와 회화의 중간 즈음에 있으며 미니멀리즘과 앤디 워홀이 주창한 팝아트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쪽에도 분류되길 원치 않는다. “저는 메시지를 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습관적으로 ‘어떤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요.”

런던에서 태어나 영국 명문 골드스미스를 졸업한 그는 영국 록 밴드 ‘블러’의 2000년 앨범 ‘더 베스트 오브’의 표지 작업으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밴드 4명의 멤버를 간결한 드로잉으로 차별화해 그린 작업이 대중적 인기를 끌며 인물 초상 작업이 그의 대표작이 됐다.

전시에는 두상을 레진으로 빛은 조각 작업과 거리의 평범한 관광객을 그린 전신 회화 작업도 선보인다. 3월 23일까지.

02)735~8449 이향휘 기자